

# 이강인 패스·손흥민 골... '토트넘 꿈의 조합' 이뤄질까

##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 이강인 영입전에 나서

### AT 마드리드와 치열한 경쟁

손흥민의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가 한국 축구의 '차세대 예이스' 이강인(마요르카) 영입전에 나섰다. 현지 보도가 나왔다.

2일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AT마드리드)에 이어 토트넘도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

이 매체는 "계약은 2025년에 끝나지만, 마요르카는 바이아웃(이적 보장 최소 이적료) 금액인 3000만 유로(약 442억원)보다 낮은 가격에 올여름 이강인을 팔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토트넘이 AT마드리드의 경쟁자로 떠올랐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 이강인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다.

문도 데포르티보는 지난 1월 AT마드리드가 이강인 영입에 나섰다고 보도한 때였다.

당시 하비에르 아그레 마요르카 감독이 이강인의 잔류를 강하게 요청했고, 결국 이적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강인은 후반기에만 리그 4골 2도움을 올리며 제 몫을 다하고 있다.

2일 열린 아틀레틱 빌바오와 홈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넣으며 마요르카의 1-1 무승부에 기여했다. 라리가 '올해의 미드필더' 후보 18인에 포함될

정도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이다.

이강인으로는 올여름이 빅클럽으로 이적할 적기다. 마요르카 입장에서도 이강인을 더 붙잡기보다 '목돈'을 쥐는 게 이득이다.

AT마드리드는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디에고 시메오나 감독의 축구에 부합한다며 계속 관심을 보여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에 매각된 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강권 팀으로 떠오른 뉴캐슬과 애스턴 빌라 등도 이강인을 원한다는 현지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던 터다.

여기에 '북런던의 큰손' 토트넘까지 중원 강화를 위해 이강인에 눈독 들이면서 영입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토트넘에는 중원과 위험지역 사이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그런데 볼 운반과 탈압박, 패스가 좋은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그런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

게다가 이강인은 올 시즌 수비 가담, 압박, 기동력에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이며 '완성형 미드필더'로 거듭나고 있다. 당장 EPL 상위권 팀에서 뛰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한국 축구 최고 스타인 손흥민과 이강인을 동시에 품는 데 따르는 상업적 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만약 이강인의 토트넘행이 이뤄진다면 한국 팬들이 상상만 해오던, 이강인의 패스로 손흥민이 골을 넣는 장면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손흥민



이강인

# 돌아온 장현식 "안 아프고 끝까지 버티겠다"

## 삼성과 경기 시즌 첫 등판 '홀드' 퓨처스 선수단에 커피차 선물



부상에서 돌아온 KIA 타이거즈의 장현식이 그라운드 안팎에서 힘이 되고 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췌장각 제거 수술을 받았던 장현식은 지난 4월 23일 삼성과의 홈경기를 통해서 올 시즌을 열었다.

'급할수록 돌아온' 장현식은 8회초 2점 차 리드 상황에서 나와 복귀전에서 홀드를 기록했다. 풍성해진 좌완과 달리 우완 고전을 했던 KIA는 경험 많은 장현식의 복귀로 불펜에 짜임새를 더했다.

1군 마운드에 힘을 더하고 있는 장현식은 3일 퓨처스 선수단에 '깜짝 선물'을 보냈다.

KT와의 퓨처스 경기가 열린 이날 장현식은 합평 헬린저스 필드로 커피차를 보냈다. 지난해 스프링캠프 선수단을 위해 김선빈이 '캡틴'으로 커피차를 쓴 경우는 있지만 팬이 아닌 선수가 동료들을 위해 커피차를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

사비를 들여 커피차를 보낸 장현식은 올 시즌을 함께 준비한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과 응원의 마음도 함께 보냈다.

장현식은 "(1군) 올라오기 전까지 함께 고생한 동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 힘든 상황 속에 행복을 주고 싶었다. 밑에서 준비를 하면서 정말 즐겁게 했고, 야구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다들 고생 많이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고 커피차를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장현식은 KIA를 대표하는 필승조 중 한 명. 재활 과정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장현식은 "똑같은 선수들이다. 오히려 의지도 하고 힘든 것 있으면 도와주고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면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장현식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을 위한 응원을 보낸 장현식은 무엇보다 주어진 역할을 잘 하는 게 함께 시즌을 준비한 이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란 말한다.

장현식은 "내가 올라 와서 잘 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자기 노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에도 부상으로 고생했던 장현식은 그만큼 '완벽'을 목표로 복귀를 준비했고, 자신감을 가지고 1군으로 왔다. 장현식은 퓨처스리그에서 6경기를 소화하면서 차분하게 복귀를 준비했다.

그는 "내 성격으로는 원래 더 급하게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해진 스케줄 대로 했다. 올라오면 다시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싸울 수 있는 구위, 제구가 초점을 맞췄다"며 "타자와 붙어도 좋은 타구 안 나오고, 힘 있는 타구가 안 나올 때가 준비된 때라고 생각했다. 힘을 다 쓸 수 있는 때가 돼서 올라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2군 감독·코치님 등 스태프들이 정해진 스케줄 대로 관리해주셔서 잘 된 것 같다"며 "정해진 스케줄 대로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 아프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게 저에게도 좋고 팀도 좋은 것이다. 밑에서 준비하고 재할하는 선수들에 대한 좋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시즌을 열었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없다. 아프지 않고 제 역할을 하는 게 목표다.

장현식은 "원래 다 잘하는 선수들이고 내가 와서 달라진 건 없다. 그래도 내가 좋은 모습 보이면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다"면서 "구체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았고 안 아픈 것만 생각하고 있다. 아프지 않으면 작년과 달리 경기와 이닝 만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아프고 시즌을 끝내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또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경쟁이라기 보다는 다른 선수들 나갈 때 열심히 응원하고, 내가 나갈 때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나의 목표인 것 같다"며 "잠실에서 경기를 하면서 팬들의 응원을 느끼고 왔다. 광주에도 우리가 잘하니까 많이 찾아와주신다. 확실히 최고의 팬 서비스는 팀 성적인 것 같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6일 홈에서 대전 상대 승점 쌓기

## K리그1 '승격 동기' 맞대결



눈길 끄는 '승격 동기'의 맞대결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FC는 6일 오후 7시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대전하나시즌을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 1 2023 11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지난해 K리그2 우승팀으로 1년 만에 K리그1으로 복귀한 광주와 승강플레이오프 승자로 8년 만에 1부 무대를 다시 밟은 대전의 흥미로운 맞대결이다.

광주의 최근 흐름은 좋지 못하다.

안방에서 펼쳐진 강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와의 승부에서 각각 0-0 무승부, 0-1패배를 기록했다. 앞선 울산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는 1위를 상대로 물러서지 않는 승부를 펼치며 광주 저력을 보여줬지만 1-2 역전패를 남겼다.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점 1점을 더하는데 그치면서 순위(4승 1무 5패·승점 13)도 5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4위에 있는 대전(5승 2무 3패·승점 17)과는 승점 4점 차, 5위에 자리한 제주(4승 2무 4패·승점 14)와는 승점 1점 차.

하지만 뒤에서 추격하는 팀들과의 격차는 더 좁혀진다. 11위인 강원FC(2승 4무 4패·승점 10)와 3점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1라운드 로빈 마지막 경기로 진행되는 11라운

드 경기 결과에 따라 중위권의 순위가 요동칠 수 있다.

최근 세 경기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경기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엄지성과 허을, 이희균 등 유스 출신 선수들이 패조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괴롭혔고 아사니, 이견희 등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

'주포' 산드로는 휴식을 통해 컨디션을 조절했고, 미드필더 이강현은 울산을 상대로 광주 데뷔골을 신고하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정호연과 이순민이 지키는 중원도 탄탄하고 김한길과 두현석의 적극적인 오버래핑, 수문장 김경민의 슈퍼세이버까지 든든하다.

4위에 있는 대전은 올 시즌 광주와 함께 돌풍의 팀으로 꼽힌다.

주세종, 조유민, 이진현 등 국가대표 출신은 물론 티아고, 안톤, 레안드로 등 외인 선수들의 활약까지 더해 전북, 울산, 서울 등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날아챘다.

상대전적에서는 광주가 9승 8무 10패로 대전에 열세를 보이지만 최근 성적에서는 광주가 앞섰다. K리그2에서 우승타임을 벌였던 지난해 광주는 대전을 상대로 2승 2무를 기록했다. 특히 2승을 안방에서 거뒀다.

또 대전은 앞선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0-3 패배를 당하면서 승점을 더하지 못했다.

안방에서 '승격 동기'를 만나는 광주가 대전을 꺾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전하나시즌을 상대로 홈경기를 치른다. 지난해 K리그2에서 우승 경쟁을 했던 '승격 동기'의 흥미로운 맞대결이 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울산과의 원정경기에서 이강현(24번)이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기뻐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 메시, 구단 허락 없이 사우디행 '활동 정지 징계'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의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가 구단의 허락 없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다가 활동 정지 징계를 받았다.

2일(현지시간) ESPN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PSG 구단은 메시에게 2주간 경기 출전과 훈련을 모두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메시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관광 홍보대사 활동을 위해 현지로 떠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일 로리앙과의 리그 홈 경기를 치른 뒤 메시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다. 그는 최근

소셜 미디어에 사우디의 풍경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올려 사우디행을 암시하기도 했다.

앞서 메시는 상업 활동을 위한 여행 허가를 구단에 요청했으나 PSG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런 데도 메시가 사우디행을 강행하자 징계로 대응한 것이다.

PSG는 로리앙과의 경기에서 1-3으로 져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다음 날 훈련을 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구단은 메시에게 활동 정지 외에 벌금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는 메시와 PSG의 재계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양측의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2021년 스페인 FC바르셀로나를 떠나 PSG 유니폼을 입은 메시는 당시 2년 계약을 맺어 이번 여름 계약이 끝난다.

재계약 협상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이 메시에게 거액을 제시했다거나 바르셀로나가 메시의 재영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징계를 계기로 메시와 PSG가 사실상 완전히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메시가 빠진 기간 PSG는 하위권 팀인 트루아, 아작시오와 리그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